



중국 국무원,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 계획 요강> 발표

2019년 12월 1일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 계획 요강(长江三角洲区域一体化发展规划纲要)>(이하 <계획 요강>)이 공표되었다. 2018년 11월 5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을 통해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을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시킬 것을 선포한 바 있다. 장강삼각주 지역은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을 포함하고, 총면적은 35.8만km²이다. 이 중 22.5만km²를 차지하는 27개 도시가 중심구역을 이루어 본 지역의 통합 발전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계획 요강>에 따르면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의 1단계 목표는 2025년까지 지역 통합 발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얻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학혁신산업, 인프라, 생태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기본적인 통합 발전을 실현하고, 전면적인 통합 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2단계 발전 목표는 2035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역 통합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적인 경제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도농 간 격차를 뚜렷하게 줄이며 인프라의 전면적인 상호연계를 실현하여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활력을 넘치는 성장극(增长极)이 되겠다.

산업 경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공동 추진을 통한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을 언급하였다.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항공 우주, 첨단장비, 신소재,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자동차, 친환경 화학공업, 섬유 의류, 스마트 가전 등 10대 분야에서 지역 우위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급 전략적 신흥산업기지와 세계급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생명 건강, 대형 항공기, 스마트 제조, 첨단신소재 등 10대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신에너지, 스마트자동차, 차세대 이동 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로봇과 집적회로의 산업 사슬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선도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자 정보, 두뇌형 칩, 3세대 반도체, 차세대 인공지능, 표적 약품, 면역세포치료,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검사 등 8가지 분야의 미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통합 발전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발전,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발전 등과 함께 중국의 “2개의 100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 中国政府网(2019.12.1).

박소희 | 연구원 · 동북아산업실 shpark@kiet.re.kr